

퇴역 실습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언

† 예병덕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운영학과 교수

요 약 :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 아래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실습을 목적으로 설계-건조된 고가의 신조 실습선을 제공함으로써 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최근 몇 척의 실습선이 퇴역하였으나, 이러한 퇴역 실습선에 대한 활용 방안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퇴역 실습선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핵심용어 : STCW, on-board training, training ship, IMO

발표 순서

연구의 배경

퇴역 실습선 현황

- 한바다호
- 한나라호

퇴역 실습선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결론



퇴역 실습선 현황

• 한바다호

- 1975년 일본 우스끼 철공소 건조
- 2005년 10월 용도폐지 (행정자산 → 일반자산)
- 2005년 - 2017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 선명을 "한반도"로 개명
- 2018년 - 2019년 활용방안 검토
 - 선박해양문화교육센터 조성 (국비 일부 확보 후 반납)
 - 복합 재개발사업 (BPA),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절차 진행



연구의 배경

- 신조실습선의 건조로 구 실습선 퇴역
- 퇴역하는 실습선에 대한 사전 활용 계획 수립 필요
- 현재는 임기응변식의 처리
- 우리나라의 국익을 고려한 활용 방안 필요
 - 제3국의 실습선으로 활용
 - IMO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활용
 - 도서지방을 위한 병원선 등으로 활용



퇴역 실습선 현황

• 한바다호

- 2019년 7월 매각계획(안) 수립 및 감정평가 (3억3천)
- 2019년 7월 30일 - 8월 6일 전자 입찰
- 2019년 8월 19일 매매계약 체결
 - 서동마리타임, 약 3억4천만원
- 2019년 10월 30일 구 "한바다"호 인계
- 폐선 절차 돌입
 - 2020년 2월 6일 부산출항
 - 2020년 3월 4일 치타공 도착, 3월 10일 선체 양륙, 해체



IMO 7513721. Length 100m, 2,061DWT. Deflagged from South Korea to Saint Kitts & Nevis for her last voyage. Classification society Korean Register of Shipping. Built in 1975 in Usuki, Japan by Usuki Tekkoshu. Owned by Korea Maritime University (South Korea). Acquired by Marshall Island-registered Sharva Shipping Inc. prior to her departure for demolition. She was beached in Bangladesh on March 10, 2020.



Bangladesh Chittagong



그간 베트남은 대형 실습선이 없어 해기사 양성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한-베트남 정상회담' 당시 베트남 정상 (고(故) 쩌다이광 주석)은 우리 측에 무상원조를 요청했으며, 이후 2019년도에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실습선 양여에 공식 합의하게 되었다. [출처: 부산일보]



퇴역 실습선 현황

- 한나라호
 - 1993년 대선조선소 건조
 - 2019년 1월 용도폐지 (행정자산 → 일반자산)
 - 2019년 2월 감정평가 - 약 32억원
 - 2019년 3월 매각계획(안) 수립
 - 2019년 4월-7월 전자입찰 실시 - 10회차 유찰
 - 2018년 3월 대한민국-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무상양여 약속 - 외교부, 해수부 등을 통한 약속 이행 촉구



퇴역 실습선의 효율적 활용방안

- 퇴역 실습선 활용 방안 검토
 - 박물관 또는 청소년 교육훈련장으로 활용
 - 우리나라 도서지방을 위한 병원선 등으로 활용
 -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활용
 - 제3국에 대한 실습 원조
- 국제협력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
 - 장차 국제사회에서 우군 확보의 일환으로 활용



퇴역 실습선 현황

- 한나라호
 - 2019년 8월 부처간 협의
 - 부처간 협력사업으로 2020년 ODA 사업에 반영
 - 해양수산부에 관련 예산 편성 (약 28억)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정부보조금으로 배정
 - 2019년 3월 9일 매매계약 - 약 16억원
 - 2020년 9월 15일 부산항 출항 - 베트남 하이퐁



결론

- 퇴역 실습선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음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한바다호의 해체
 - 국가재산인 한나라호의 무상 양여 - 베트남의 운영능력 검토하지 않음
- 퇴역 실습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언
 -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 최선의 정책은 국가 주도로 퇴역 실습선 운영
 - 약 3년의 운영 후에 제3국에 무상(또는 유상) 양여

